

研究論文

# 日帝下 孟山郡農民社의 活動과 民族運動

조성운\*

I. 머리말	III. 맹산군농민사의 설치와 활동
II. 천도교의 전래와 성장	IV. 맺음말

## I. 머리말

일제하 한국민족운동은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세력과 다양한 방법에 의해 전개되었다. 특히 일제의 직접적인 통치하에 놓여 있던 국내에서의 민족운동은 국외와 비교할 때 일제의 탄압이라는 악조건 하에서 전개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는 국내의 민족운동 가운데 특히 천도교의 민족운동에 대한 연구는 한동안 미진한 감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 문화운동을 비롯한 천도교의 민족운동에 대한 연구가 비교적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조선농민사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저조하였다. 더욱이 군 단위의 천도교 민족운동이나 군농민사의 활동에 대한 연구는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천도교 중앙조직의 조직과 활동에 비해 군 단위의 지방조직의 활동은 상대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또한 천도교에 대한 기존의 연구성과들은 주로 천도교의 사상과 문화운동의 측

---

\* 수지고등학교 교사, 문학박사, 한국근대사

면에서 연구되었고<sup>1)</sup> 이를 지역 차원에서 구명한 사례연구는 거의 없는 형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사례에 대한 연구<sup>2)</sup>는 기존의 이론적인 연구 성과에 대한 검증이라는 차원으로도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본고에서는 천도교 민족운동 가운데 가장 활발하고 광범위하게 전개되었던 농민사활동을 평남 孟山郡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필자가 맹산지역을 사례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첫째, 맹산군농민사가 창립부터 해산될 때까지 가장 활발한 운동을 전개한 농민사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둘째로는 『신인간』, 『黨聲』, 『農民』, 『朝鮮農民』, 『天道教會月報』 등 천도교 측의 자료 외에도 『동아일보』에 기사가 비교적 풍부하게 남아있으며 맹산군농민사의 활동에 직접 참가한 인물들의 회고담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맹산군농민사의 사례연구를 통하여 우리는 조선농민사가 각 지역에서 어떠한 활동을 전개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필자는 우선 맹산지역에 동학이 전래되고 성장하는 과정을 살핀 후 맹산군농민사의 조직 과정, 그리고 활동을 야학을 비롯한 교육활동, 알선부와 공생조합을 통한 농민의 경제적 이익획득운동, 이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공동경작과 공작계 활동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필자는 조선농민사의 활동이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발현되고 그 영향이 어떠했는가를 확인하고자 한다.

- 
- 1) 천도교의 문화운동에 대한 연구로는 黃善禧, 「1920年代의 天道教와 新文化運動 李敦化의 三大開關論을 中心으로-」, 『龍巖車文燮教授華甲紀念史學論叢』, (1989); 劉準基, 「天道教의 新教育運動」, 『汕耘史學』6, (1992); 金昌洙, 「文化運動研究의 現段階와 課題」, 『한민족독립운동사』12, (1993); 윤해동, 「한말 일제하 天道教 金起田의 ‘近代’ 수용과 ‘民族主義」, 『역사문제연구』1, (1996); 鄭用書 「日帝下 天道教青年黨의 政治·經濟思想研究」,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1997); 曹圭泰, 「天道教의 文化運動論 定立과 그 패러다임」, 『한국민족운동사연구』19, (1998); 『1920年代 天道教의 文化運動研究』, 서강대 박사학위논문(1998). 등이 있다
- 2) 지방사회에서 전개된 천도교의 민족운동에 대한 연구로는 조규태, 「舊韓末 平安道地方의 東學 교세의 신장과 성격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東亞研究』21, (1990); 박지태 「일제하 서울에서의 조선농민사 활동」, 『향토서울』58, (1998); 조성윤, 「日帝下 水原地域 天道教의 成長과 民族運動」, 『京畿史論』4·5합집, (2001). 등이 있다.

## II. 천도교의 전래와 성장

맹산군에 천도교가 전파된 시기는 1895년 方鎭垣이 입교하면서부터라고 생각된다. 3) 이후 이관국, 정덕화가 1897년에 입도하였고, 4) 1900년에는 지덕면 오봉리의 崔基焉, 소창리의 金錫祥, 효리의 方殷俊, 봉인면 팔봉리의 李陽鸞, 애전면 함운리의 朴允祚, 초평면의 方孝俊, 학천면 고하리의 朴致弘 부자 등이 입교하였고, 1901년에는 맹산면, 원남면, 옥천면, 동면 등에도 포교되었다. 그리고 1904년에는 방기창의 주도로 진보회가 조직되어 활동하였다. 이후 맹산군의 천도교세는 1910년에 이르르면 약 150호가 된다. 5) 그러나 1919년 당시 맹산군의 요지라 할 수 있는 북창리에 천도교인이 弓尙元 1인이었다는 사실<sup>6)</sup>은 이 지역에 천도교가 활발히 전파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지만 1927년에는 50내지 60호의 도인이 증가<sup>7)</sup>하였던 것으로 보아 1920년대 중반 이후 천도교세가 확장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천도교세의 증가는 천도교종학강습소 및 조선농민사의 설치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 맹산군에는 덕림면 烏里, 퇴봉면 은천리, 원면, 광천면 안상동, 광천면 용하동, 8) 애전면 광산리, 광천면오봉리, 맹산군 교구실내, 원면 정너동 등 10개소에 강습소가 설치되었으며 이 강습소는 1912년에 동명을 따라 불리던 강습소의 명칭을 사무통일을 위하여 강습소칙에 따라 제1강습소, 제2강습소라 개칭하였다. 9) 이에 따라 도리강습소는 제147강습소, 은천리강습소는 제148강습소, 원면강습소는 제149강습소, 안상동강습소는 제150강습소, 용하동강습소는 151강습소로 개칭되었고, 10) 애전면 광산리강습소는 제264강습소, 광천면 오봉리강습소는 제265강습소, 맹산군 교구실내 강습소는 제266강습소, 11) 광천면 용하리강습소

3) 『天道敎創建錄』, 326쪽. 그러나 천도교 맹산군 연원록에 따르면 1899년 입도한 지덕면 오봉리의 崔貞鸞이 최초의 신자로 기록되어 있다.

4) 『天道敎創建錄』, 325-326쪽

5) 「맹산교구의 만세운동」, 『신인간』468, 69쪽.

6) 洪鎭赫, 「北倉宗理院을 代하여」, 『신인간』45, 1930. 3. 328쪽 (경인문화사영인본 쪽수)

7) 洪鎭赫, 「北倉宗理院을 代하여」, 『신인간』45, 1930. 3. 328쪽.(경인문화사영인본 쪽수)

8) 『天道敎會月報』, 제15호, 69쪽.

9) 『天道敎會月報』, 10호, 54쪽.

10) 『天道敎會月報』, 제15호, 69쪽.

11) 『天道敎會月報』22, 49쪽

는 제312강습소<sup>12)</sup> 맹산군 원면 정녀동강습소는 제488강습소로 개칭되었다<sup>13)</sup> 여  
기에서 강습받은 인물은 다음과 같다.

제148강습소: 李基珍 鄭明斗 朴宗道 方處官 李南根 李陽根 朴基根<sup>14)</sup>

제266강습소: 金錫鍊 金昌鎬 朴基錫 金萬璉 金景燮 金병祿 金大淵 朴寅範 金  
一善 黃奎稷 鄭承周 鄭元國 韓炳國 李弼俊 金尙學 朴文祥 朴文贊 朴永俊

제151강습소: 張斗南 趙麟增 趙能珪 趙永洙 金鳳翰<sup>15)</sup>

제149강습소: 金致相 金炳珠 金孝達 金正洙 金元弘 吉話 金尙律<sup>16)</sup>

제148강습소: 朴昌道 朴君一 李炳綱 鄭善斗 金贊鳳 朴鳳綱 金弘道 金官道 金  
達豐 朴弘道<sup>17)</sup>

제266강습소: 方煥驥 朴秦鳳 李天祐 金尙學 金炳祿 方用熙 朴文祥 吉元述 朴  
弼河 金元赫 朴덕奎 韓宗股 朴永俊 金洛哲 金基英 金自慶<sup>18)</sup>

그리고 천도교청년당 맹산군부에서는 1928년 농한기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포  
교하기 위하여 布德會를 조직하였다.<sup>19)</sup> 이 포덕행사는 1926년부터 11월 1일을 기  
하여 전조선 또는 전세계적으로 천도교를 선전하는 연중행사의 하나로서 1928년  
맹산은 곡산, 구성, 안주, 동경, 초산 등과 함께 가장 성공적인 지역<sup>20)</sup>으로서 11월  
말일까지 58호를 포교하였다.<sup>21)</sup> 또한 1929년의 포덕행사 역시 맹산은 특히 성적  
이 좋은 지역으로 보고되었다.<sup>22)</sup> 이와 함께 맹산군 종리원과 청년당에서는 金秉  
濟, 白重彬을 강사로 11월 16일부터 3일간 강도회를 개최하였는데 참석한 인원이  
대략 140명이었고 공개강의 역시 대성황을 이루었다.<sup>23)</sup> 또 천도교 청년당 맹산군

12) 地方講習所名稱, 『天道教會月報』23, 46쪽

13) 「地方講習所名稱」, 『天道教會月報』29, 48쪽

14) 「地方講習所修業人氏名」, 『天道教會月報』16, 71쪽

15) 「各地方講習所修業人氏名」, 『天道教會月報』14, 59쪽

16) 「地方講習所修業人氏名」, 『天道教會月報』20, 48쪽

17) 「地方講習所修業人氏名」, 『天道教會月報』26, 43쪽

18) 「地方講習所修業人氏名」, 『天道教會月報』29, 50쪽

19) 「布德會再組織」, 『신인간』30, 1928. 12. 54쪽.

20) 「青年黨彙報」, 『신인간』31, 1929. 1. 67쪽.

21) 「青年黨彙報」, 『신인간』31, 1929. 1. 68쪽.

22) 「各地 布德날 宣傳 狀況」, 『신인간』42, 1929. 12. 128(경인문화사 영인본 쪽수)

부에서는 1930년 1월 매월 1일에 개최하였던 接<sup>24)</sup>代表講習會를 변경하여 각면에 접연합회를 열어 매구역마다 3일간 당원강습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sup>25)</sup> 1933년 2월 1일에는 천도교청년당 맹산부의 당원대회가 개최되어 대표 길응철 등을 선출하였다.<sup>26)</sup> 1934년 2월 1일에도 당맹산부대회가 개최되어 길응철을 대표로 선출하였다.<sup>27)</sup> 그리고 內修團의 단원회도 개최되어 대표 김학화, 포덕부 김상화, 서무부 이택화, 재무부 김상화가 선임되었다.<sup>28)</sup> 1932년 1월 2일에는 內誠團대회를 열고 대표 김상화, 포덕부상무 김학화, 서무부상무 이택화, 재무부상무 김각화를 선임하였다.<sup>29)</sup> 이외에도 천도교청년회 맹산청년회 대회가 1930년 8월 1일 개최되었다.<sup>30)</sup> 그리고 삼리청년회가 1932년 11월 22일 창립되었으며<sup>31)</sup> 용덕리청년회는 1932년 12월 4일 창립되었다.<sup>32)</sup> 인덕청년회는 1933년 3월 7일 길응철가에 모여 위원장 方京律 부위원장 吉元周 등을 선출한 후 다음을 결의하였다.<sup>33)</sup>

1. 매일 早朝에 일정한 장소에 집합하여 丁抹體操를 할 것
1. 매토요일은 組<sup>34)</sup>代表의 집에 회합하여 共同作業을 할 것.

23) 『地方黨部の 教養狀況』, 『신인간』42, 129쪽(경인문화사 영인본 쪽수)  
 24) 접이란 본부, 지방부, 접으로 구성된 천도교청년당의 기본조직으로서 3인 이상 7인 이내의 당원으로 조직된다.(劉漢日, 『接生活의 實際』, 黨聲 1932. 4. 1) 즉 접 조직→지방부 조직→본부 조직의 경로를 통하여 천도교 청년당이 조직되는 것으로 이해된다.(李春培, 『接代表 여러분에게』, 黨聲 1932. 5. 1)  
 25) 『彙報』, 『신인간』44, 1930. 2. 276쪽(경인문화사 영인본 쪽수)  
 26) 黨聲, 1933. 4. 1, 『各地方黨部の 新陳容』  
 27) 黨聲, 1933. 5. 1, 『地方黨部の 新陳容』  
 28) 『彙報』, 『신인간』44, 1930. 2. 277쪽(경인문화사 영인본 쪽수)  
 29) 『동아일보』, 1932. 1. 8, 『孟山內誠團大會』  
 30) 黨聲, 1931. 10. 1, 『孟山部大會』  
 31) 黨聲, 1933. 4. 1, 『孟山三里青年會組織』  
 32) 黨聲, 1933. 4. 1, 『孟山龍海青年會組織』  
 33) 黨聲, 1933. 5. 1, 『部門運動消息』  
 34) ‘組’란 3-17인으로 조직된 청년회의 전면적 활동부대이다 ‘組’의 임무는 동적활동임무와 정적활동임무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동적활동임무는 첫째, 각계각층 특히 청년대중에 대한 선전활동의 임무, 둘째, 천도교청년당의 지위를 널리 알림, 셋째, 미조직 청년대중우의 획득 및 조직에 힘쓸 것 등이다. 정적활동임무는 천도교의 사상을 무장하여 천도교 및 청년당의 직원이 되게 하는 것, 둘째, 일반청년대중에 대한 수운주의적 지도 혹은 조장, 셋째, 청년대중 뿐만 아니라 소년부녀 등에 대한 계몽활동 등이다.(黨聲, 1933. 12. 1, 『組의 任務와 活動』)

1. 매 侍日은 회원일동이 회합하여 敎理研究 및 신문잡지를 강독할 것
1. 회원은 일정회합일 외에도 본 회관에 회집할 것.

그리고 인덕청년회는 창립 이래 2개년을 ‘모범적’인 활동을 하였다고 자체 평가하였다.<sup>35)</sup> 그 내용을 보면 1. 매시일 밤에는 회원 일동이 본회관에 집합하여 교리 연구, 신문잡지 등을 강독한 것, 2. 매 토요일 밤에는 조대표의 집에 집합하여 부업으로 농업의 필수품을 제조해서 각각 자가에 소용케 한 것, 3. 여름 농한기에는 회원 일동이 조기하여 일정한 장소에서 정말체조를 하고 해산하여 풀을 한 짐씩 채취하여 비료에 사용하여 군 혹은 면에서 지도받기 전에 자각실행하는 부락이라 하여 지도받지 않은 것, 4. 위생을 보급하기 위하여 청결일을 리내에 미리 통지하여 검사위원을 선출하고 일제히 청결을 실행한 일, 5. 소비조합을 조직하여 회의 경제적 기초를 완성하려는 것 등이다.

이와 같이 청년회가 각리를 중심으로 조직되면서 청년회연합회가 韓夢鷹을 위원장으로 선출하면서 조직되었다.<sup>36)</sup> 1931년 8월 1일에는 55 명의 사원으로 맹산노동사도 설치되었다.<sup>37)</sup> 이러한 교세의 성장과 함께 맹산군종리원에서는 1929년 12월 29일 40만의 순도자의 위령식을 거행하였다.<sup>38)</sup>

이상과 같이 맹산지역에서 천도교의 교세가 급증한 것은 이 지역 교역자들의 활동의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 즉 당맹산부의 대표였던 길응철의 진술에 따르면 당의 공문이 각 당원에게 일일이 전달되는 것은 물론이고 당원대회 1회, 집행위원회 6회, 당원예회 4회, 당원의 당부 출석이 연중 2회를 실시하여 지도부와 일반 신도 사이에 신뢰를 구축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sup>39)</sup>

35) 吉應哲, 「仁德青年會의 成績을 紹介함」, 黨聲, 1934. 6. 1. 여기에서 ‘모범적’이라는 평가는 다분히 체제에 협조적인 느낌을 갖게 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36) 黨聲, 1933. 6. 1, 「孟山郡聯合會」. 이 때 선출된 임원은 위원장 한몽응, 교양부장 방경음, 부위원장 조병흡, 체육부장 방병환, 비서부장 이필선, 위원 안선학, 조직부장 차일관

37) 『동아일보』, 1931. 8. 5, 「孟山勞動社創立 消費組合을 設置」: 黨聲, 1932. 2. 1, 「孟山勞動社」. 위원은 吉應哲, 方承道, 崔一龍, 朴鳳賢, 朴昌伯, 安處守, 李鳳贊, 李泰煥, 金得洙, 상무위원은 위원장 吉應哲, 부위원장 李泰煥, 서무부장 金得洙, 재무부장 李鳳贊, 조직부장 崔一龍, 교양부장 安處守, 경제부장 方承道, 정의부장 李日龍, 감사장 方贊柱, 감사 趙處恒, 羅文奎 등이다

38) 『동아일보』, 1930. 1. 5, 「40萬 殉道者의 慰靈式 舉行」

39) 黨聲, 1933. 5. 1, 「管内 黨員 對面이 年中 10次以上」.

### III. 맹산군농민사의 설치와 활동

#### 1. 설치

조선농민사 맹산지사는 1925년 3월 1일 지사장 朴準麒를 비롯한 趙處恒, 吉應哲 등의 활동으로 『朝鮮農民』 독자 200여 명을 모집하여 설치되었다<sup>40)</sup> 조직 이후 맹산지부는 多興花里에 “社友의 친목을 도모하며 농촌의 모든 운동에 진력” 할 목적으로 1926년 12월 25일 44명의 회원으로 社友會를 조직하였다<sup>41)</sup> 1928년 2월 2일에는 孟山農友會로 개칭하였다가 3월에는 이사장 趙處恒, 부이사장 方壬柱, 吉應哲 등을 중심으로 맹산군농민사로 개체되었다. 그리고 이후 3개월만에 맹산군 8개면에 모두 면 단위 농민사를 조직하였고 이어 연말까지 전군의 85개 리에 리 농민사도 조직이 완료되었다. 이리하여 전군 7,850호 중 5,300여 호가 농민사에 가입하게 되었다.<sup>42)</sup> 이후 맹산군농민사는 퇴봉면(1930. 9. 24),<sup>43)</sup> 애전면(1930. 9. 25),<sup>44)</sup> 인화면(1930. 9. 29),<sup>45)</sup> 옥천면(1930. 10. 11),<sup>46)</sup> 맹산면(1930. 10. 11),<sup>47)</sup>

40) 『朝鮮農民社所屬機關紹介(其4)』, 『農民』3-10, 1932. 11, 55쪽. 여기에서 조선농민사 맹산지사의 조직일이 1925년 3월 1일이라 한 것은 조선농민사가 1925년 10월에 조직되었음을 생각한다면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1926년이 아닐까 한다. 맹산군농민사에서 활동하였던 김도준도 1926년 3월로 기억하고 있다.(김도준, 박연수와와의 대담, 『농민공생조합』, 『신인간』358, 61쪽)

41) 『支部通信』, 『朝鮮農民』3권 6호(1927년 6월), 41쪽. 위원은 金應國, 朴孝林, 趙大奎, 朴來之가 선출되었다.

42) 김도준, 박연수와와의 대담, 『농민공생조합』, 『신인간』358, 61쪽 이 때 조직된 면농민사의 이사장은 맹산면(桂仲學), 지덕면(張龍官), 애전면(朴明源), 동면(方煥燐), 원남면(金尙學), 옥천면(崔輔國), 봉인면(羅文奎), 학천면(金道俊) 등이었다.

43) 『동아일보』, 1930. 10. 7, 『孟山에 農民社 각처에 설립』. 임원으로는 이사장 趙永林, 부이사장 朴宗道, 비서 弓處寬 등이 선정되었으며 1. 사세를 확장할 것 1. 농촌강좌를 실시할 것 1. 알선부를 조직할 것, 1. 기타사항 등을 토의하였다.

44) 『동아일보』, 1930. 10. 7, 『孟山에 農民社 각처에 설립』. 임원으로는 이사장 朴明源, 부이사장 金明浩, 비서 曹永植 등이 선정되었다

45) 『동아일보』, 1930. 10. 7, 『孟山에 農民社 각처에 설립』. 임원으로는 이사장 金東浩, 부이사장 羅文奎, 비서 李夏成 등이 선정되었으며 1. 사원모집의 건 1. 농촌 야학을 동리마다 설치할 것 1. 알선부 구금을 다수 모집할 것, 1. 남선이제민구제금을 각리에서 의무적으로 捐出할 것 등을 토의하였다.

46) 『동아일보』, 1930. 10. 15, 『面農民社創立 生活改善討議 맹산군에서』. 임원으로는 이사장 홍진혁,

<표 1> 맹산군 각리 농민사의 주요활동가

맹산면	수품리 방기원, 당포리 조원실, 학무리 계중학 화리 방호규 다흥리 김응국 박봉립 문호리 조찬영, 송계리 길조강, 향내리 길순초, 동매리 한기하
옥천면	북창리 최보국, 연리 정영찬, 수리 조병완, 남양리 이정길 곤동 차정택 사동 장화룡 송동 김치경, 매현리 강영수, 신동 조운행, 석동 김계담, 구룡리 이금덕, 현봉리 김호선, 삼리 안처수, 공문구, 내포리 최석형, 이산리 김린섭, 용덕리 조병적, 용하리 조운식, 석태리 김영수, 안학리 김경선, 강포리 장호중
봉인면	가창리 박희규, 성남리 박명진, 류내리 김만성, 정관리 이필선, 정하리 이병룡, 분양리 김흥전, 덕중리 정호, 덕상리 최병화 안하리 한몽득 안상리 주성남 남천리 김승호 은천리 우창선, 남양리 김수손, 팔봉리 한상한, 서자옥, 팔하리 이승률, 원남면 주포리 엄기수, 남흥리 신제경 명장리 박면술 시역리 김기영 향평리 유병순 상계리 박태륙 행산리 김상률, 정인리 김경환, 중추리 기홍수, 수남리 박찬주,
학천면	가리 장한봉, 오봉리 최호술, 길상리 만응식 고하리 백호섭 소창리 김도준 소하리 김성수, 박성, 정원도, 원정리 이춘원
동면	방평리 방형주, 신중리 방환립 평지리 정덕화 초요리 박병주 지덕면 학포리 방태경 용덕리 장용관, 양성리 박필하, 의성리 방락호, 와요리 박봉연, 송암리 박성간, 용산리 김대현, 상화리 박학경, 두암리 박찬조, 송흥리 박제규,
애전면	광리 박응걸, 창리 이정섭, 맹주리 김용연, 임찬숙, 풍림리 방용대, 윤태환, 초평리 안택조, 박계조, 성재리 이명호, 김추경, 문곡리 박윤조, 박호경, 함온리 이에겸, 방대선
영흥군 약덕면	대숙리 차종진
영흥군 횡천면	미지리 김치현, 조능규

원남면(1930. 10. 11), 48) 학천면(1930. 11. 19), 49) 동면(1931. 3. 15) 50) 등 조직의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다. 51) 이리하여 1930년 1월 29일 개최된 전군농민사대회에

부이사장 나영선 외 18인이 선정되었으며 1. 각리에 소비조합을 설치하여 농가일용품을 알선부에 의뢰하여 공동구입할 것, 1. 혼례에 대한 사치품을 엄금하고 순국산품을 대용할 것, 1. 상제례에 각자의 생활정도에 넘치는 모든 充費를 절약할 것 등을 토의하였다.

- 47) 『동아일보』, 1930. 10. 17, 「農民社組織」. 임원으로는 이사장 方煥麟 부이사장 金應國 비서 康保國 등을 선임하였다.
- 48) 『동아일보』, 1930. 10. 24, 「面農民社組織」. 임원으로는 이사장 金道洙, 부이사장 金尙學, 비서 金柄柱 등이 선임되었다.
- 49) 『동아일보』, 1930. 12. 10, 「鶴泉面에 農民社創立」
- 50) 『동아일보』, 1931. 3. 24, 「東西農社創立」.
- 51) 1930년에 이루어진 맹산군농민사의 8개면 농민사에 대한 기사에는 이들 농민사가 ‘조직된 것으



참가한 리농민사는 전체 85개 리 중 82개 리에 이르렀다<sup>52)</sup> 이러한 결과 1930년 4월 이후 사원이 日加月增하여 사원이 3,300여 명에 달하였고 전군 호수 7,496호의 46%에 달하였다.<sup>53)</sup> 각리농민사와 주요활동가는 <표 1>과 같다<sup>54)</sup>

이와 같은 활동의 결과 맹산군농민사는 1932년 무렵에는 “전국에서 首位를 점하고 있는 농민사”<sup>55)</sup>가 되었다. 그런데 永興郡의 耀德面 大淑里와 橫川面 美志里가 맹산군농민사의 산하에 있었던 것<sup>56)</sup>은 이 두 개 면의 생활권이 맹산지역에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생각된다.

## 2. 활동

### 1) 교육활동

먼저 맹산군농민사는 농민계몽을 위한 야학을 설립하는 등 농민층에 대한 교육활동에 적극적이었다. 맹산지역 천도교의 핵심인물 중의 한 사람인 홍진혁은 옥천면 북창시의 보통학교 훈도인 김상섭, 김정일과 정태원, 최보국 등과 함께 1929년 12월 1일부터 노농야학을 개설하고 천도교 옥천면 종리원에서 조선문, 산술, 일어 습자 등을 교수하였다.<sup>57)</sup> 동해농민사가 1931년 9월 11일 야학관의 건축을 결의하였으며,<sup>58)</sup> 삼리에서도 1931년 9월 14일부터 야학당의 건립에 착수하여 10월 15일에 준공 예정이었으며,<sup>59)</sup> 서학리농민사, 냉정동농민사, 굴암덕농민사는 연합하여 4간짜리 야학당을 건축하였다.<sup>60)</sup> 또한 맹산군 천도교의 핵심인물 중의 한 사람인 박용완은 봉인면 덕중리 덕홍의숙에서 열린 강습회에 강사로 참여하기도 하였

---

로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위의 김도준과 박연수의 대답에서 확인되듯이 ‘개판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52) 『동아일보』, 1931. 2. 10, 「孟山農民社 全郡大會 개최 각리대표가 모여」

53) 「朝鮮農民社所屬機關紹介(其4), 『農民』3-10, 1932. 11, 55 쪽

54) 「朝鮮農民社所屬機關紹介(其4), 『農民』3-10, 1932. 11, 55 쪽

55) 『農民』3권 4호(1932년 4월), 38 쪽.

56) 「朝鮮農民社所屬機關紹介(其4), 『農民』3-10, 1932. 11, 55 쪽

57) 『동아일보』, 1929. 12. 25, 「北倉勞農夜學」.

58) 『동아일보』, 1931. 9. 24, 「孟山東海農社夜學館建築決意」.

59) 『동아일보』, 1931. 9. 30, 「孟山三里에서 農民學院建築」.

60) 『동아일보』, 1931. 10. 9, 「棲鶴里農民社 夜學堂을 新築」.

다.61)

그리고 맹산군농민사원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1930년 12월 14일부터 3일간 농촌지도자강습회를 개최하였으며,62) 1930년 12월 10일부터 전군을 玉泉, 元南, 孟山, 封仁의 4구로 나누어 일반사원을 대상으로 지도자강습을 개최하고자 하였는데63) 香坪里에서는 金道洙, 金尙學이 한글, 산술, 작문, 상식을 강의할 예정이었다.64) 또한 1931년 초에는 전군을 8구로 나누어 농촌지도자강습회를 개최하고자 하였는데 元南강습회, 仁化강습회, 雷封강습회, 玉泉강습회는 1931년 2월 19일부터 2월 25일 사이에 3일간의 강습일정을 마치었다.65) 이 때 강습과목은 경제, 조선근세사, 상식 등이었다.66) 이외에도 학천면에서는 천도교당을 야학당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67) 옥천면 삼리농민사는 농민독서회와 신문구독회를 설치하였고,68) 농민학원을 설치하고자 하였으며,69) 東面 소요리농민사도 독서회의 설치를 결의하였다.70) 애전면 맹주리에서도 1931년 3월 11일 농민독서회가 조직되었는데 대중독본, 대중산술, 주산, 작문, 상식 등의 과목을 尹鎭泓, 安國彬 등이 강의하였다.71) 이에 따라 맹산군에서는 천도교인치고 문맹자가 한 사람도 없었고 농민사원이나 공생조합원도 문맹율이 극히 낮았다고 한다.72) 동시에 이러한 야학이나 강습회는 항일의식을 고취하는 방편으로도 이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김도준의 증언에 따르면 언제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강습이 끝난 후 합창한 노래 때문에 봉인면 안하리의 韓夢鷹과 李弼善이 검거되어 1년여의 옥고를 치루었다는 것이다.73) 또한 맹산군농민사는 군농민공생조합의 이익금 중 1%를 각 리의 야학

61) 『동아일보』, 1930. 12. 27, 「農民指導者講習會」

62) 『동아일보』, 1930. 12. 27, 「孟山農村指導者講習會」

63) 『동아일보』, 1930. 12. 17, 「農村指導者講習會를 開催 전군을 4구로 나누어 第一區玉泉面 終了」.

64) 『동아일보』, 1931. 1. 4, 「農民指導講習」.

65) 『동아일보』, 1931. 3. 1, 「農村指導者講習會를 開催 孟山郡農民社서」.

66) 『동아일보』, 1931. 3. 14, 「農村指導者講習會 終了」.

67) 『동아일보』, 1931. 1. 10, 「鶴泉面夜學」.

68) 『동아일보』, 1931. 1. 18, 「三里農社讀書會」.

69) 『동아일보』, 1931. 3. 15, 「農民學院設置討議」.

70) 『동아일보』, 1931. 2. 3, 「趙遙里農社創立」.

71) 『동아일보』, 1931. 3. 13, 「孟山 各處의 農民社活動 孟州里農民讀書會」.

72) 김도준, 박연수와의 대담, 앞의 글 64쪽

73) 이 때 부른 노래의 가사는 다음과 같다. “삼천리 금수강산 우리 사는 한반도에 왜놈들은 무삼일

및 교양운동비로 충당하였다고 한다.<sup>74)</sup>

## 2) 경제적 이익 획득 활동

한편 맹산군의 천도교세가 이와 같이 성장함에 따라 맹산군농민사의 알선부 활동도 매우 활발히 전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1930년 6월 영법 덕천 맹산의 교통 요지인 북창시에 최초로 알선부가 설치된 이후 구금이 수천원으로 증가하고 3, 4개월만에 읍내에도 알선부가 설치되었으며, 1931년초에는 수천원의 구금으로 남면 동창시에 알선부가 설치되는 등 맹산군의 알선부 설치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sup>75)</sup> 그리하여 1931년 3월경 가창시<sup>76)</sup>와 애창시에 알선부를 설치한 것까지 모두 5개의 면 단위 알선부가 설치되었다.<sup>77)</sup> 당맹산부의 대표인 조처항의 보고에 따르면 맹산군농민사는 점포를 설치하여 농민들의 일용품을 알선해 주었으며 이를 경험하면 대단히 필요한 일임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는 지극히 필요한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지극히 위험한 일이므로 중앙의 통일적인 지도가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sup>78)</sup> 조처항의 알선부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다소 과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알선부는 “농민층에게는 유일무이의 경제기관이요 물질적 생활수단을 가르치는 학교의 역할”을 했던 것은 인정하나 “보통고객에게 물품을 매매하는 것보다 농가소비품 알선에 가일층하라”<sup>79)</sup>는 지적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알선부의 활동이 전적으로 농민층의 이해에 기반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맹산군농민사의 6개소의 알선부원인 홍진혁, 정영찬, 이화선, 조처항 등은 조선농민의 경제적 실력 양성이 우리의 살길이라는 뜻에서 서부조선의 각 농민사 알선부를 연합하여 西鮮農民經濟部를 설립하고 생산기관을 설치하여 외국상품에 구축당하는 조선의 경제를 지키고자 하였다.<sup>80)</sup> 이에 따라 1931년 4월 20일 맹

로 왜 왔다 왜 안가나 한울님께 조화받아 일야에 소멸하여 우리 민족 쓰린 원한 되살려보세.”(김도준, 박연수와와의 대답 앞의 글 64 쪽)

74) 위와 같음.

75) 『동아일보』, 1931. 2. 26, 「孟山時話」.

76) 『동아일보』, 1931. 3. 26, 「孟山 假倉市 斡旋部創設」. 가창시 알선부의 전무이사는 羅文奎와 金東浩가 선임되었다.

77) 『동아일보』, 1931. 4. 1, 「孟山郡農社서 斡旋部 增設 既設이 三個所」.

78) 黨聲, 1931. 6. 2, 「斡旋部の 統一한 指導」.

79) 『동아일보』, 1931. 2. 26, 「孟山時話」.

산군농민사 앞선부원 총회에서 서선농민경제부를 설치하기 위한 발기문이 채택되고 평남북과 황해도의 각 농민사와 평남도농사연합회에 발기문을 발송하였고 이로 부터 3, 4개월 이내에 평양에 대공장을 설치하고자 하였다<sup>81)</sup> 그리하여 뒤에 서술 하듯이 1931년 6월 20일 맹산군농민사 옥천면연합대회에서 결의되고 있듯이 평양 고무공장의 설치가 구체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교세를 바탕으로 맹산군농민사에서는 朴準麒, 鄭永贊, 洪鎭赫, 李化善, 文炳魯, 吉應哲 등의 활동에 의해 1930년 7월 26일 대표 조처항, 전무 이화선, 상무 方煥祺 등으로 맹산농민공생조합이 조직되었다<sup>82)</sup> 맹산농민공생조합은 옥천면 북창에 설치되었으며,<sup>83)</sup>설치 당시에는 조합원 529명, 구금은 7,032 원 특별기타 자금 9,000여 원에 달하였고 매월 평균 상품 매매고가 7,000 원 내지 8,000 원에 이르러 1931년 1,000여 원의 순이익이 발생하였다<sup>84)</sup> 그리고 농민공생조합의 전성기였던 1930년대 중반기에는 총운영자금이 70여 만 원에 달하였다 이와 같이 맹산군농민공생조합의 세가 급격히 확대된 것은 맹산군의 거부인 鄭永贊과 李化善이 자신이 운영하던 영찬상회와 화선상회를 공생조합에 합쳤기 때문이었다.<sup>85)</sup> 이렇게 맹산농민공생조합의 규모가 확대되고 공생조합원 뿐만 아니라 비조합원까지도 공생조합을 이용하면서 맹산군내의 일반 상회 가운데는 폐점하는 곳도 많았다고 한다.<sup>86)</sup>

그리고 맹산군농민사는 1931년 6월 1일 제4회 이사회에서 군농민사 소속 7개의 앞선부 중 邑內, 北倉, 假倉, 東倉, 藹倉, 南倉 등 6개소의 앞선부를 공생조합으로 변경하고 함남 영흥군 山城幹旋部만은 소비조합으로 개편하였다. 그리고 공생조합장 조처항, 전무 洪鎭赫, 常務員長 鄭永贊을 선임하였다.<sup>87)</sup> 소비조합은 애전면, 봉인면, 지덕면, 옥천면, 퇴봉면 등에 면단위 소비조합이 설치되었고, 안상리,

80) 『동아일보』, 1931. 4. 19, 「外來品防禦코저 西鮮農經部設立 生産機關을 設置하고 孟山農社幹旋部員이」.

81) 『동아일보』, 1931. 4. 26, 「黃平道를 網羅한 西鮮農民經濟部組織」.

82) 「朝鮮農民社所屬機關紹介(其4)」, 『農民』3-10, 1932. 11, 55 쪽

83) 김도준, 박연수와의 대담, 앞의 글 63 쪽

84) 「朝鮮農民社所屬機關紹介(其4)」, 『農民』3-10, 1932. 11, 55 쪽

85) 김도준, 박연수와의 대담, 앞의 글 62 쪽

86) 김도준, 박연수와의 대담, 앞의 글 63 쪽

87) 『동아일보』, 1931. 6. 9. 「孟山幹旋部를 共生組合으로」.

용덕리, 정광리, 88) 趙遙里, 89) 삼리, 강포리 등에는 리단위 소비조합이 설치되거나 논의되었다. 또한 1930년 3월 30일 옥천면 북창리에서는 趙元祚를 회장으로 하는 평안협동조합 북창리회가 회원 40여 명으로 조직되었는데, 그 목적은 1. 회원간 친목과 상부상조하여 공존공영을 도모함, 2. 생활개선과 악풍교정에 면려함 3. 회원의 경제상 필요지식을 함양함, 4. 회원의 생활 소비품 매매를 알선함 등이었다. 90) 이로 보아 소비조합은 알선부의 지도를 받다가 공생조합의 조직 이후에는 공생조합의 지도를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맹산군농민사 소속의 강포리소비조합의 규약은 다음과 같다. 91)

- 가. 강포사의 경제사업으로 함.
- 나. 1구 2원으로 하되 10구 이상은 불허함
- 다. 구금의 일시 미불자는 매월 10 전씩으로 20 개월에 불입함을 득함
- 라. 구금이나 적립금이 상당한 액수에 달할 시는 토지를 매득하여 공작계를 조직함.
- 마. 농촌소비품을 알선함
- 바. 빈농가에 대하여 牛 및 猪를 買給함.
- 사. 무산아동학비보조 단 가입수속은 3 개월 전 농민사 입사를 요함 기타는 공생조합규약과 대동소이함. 조합원 수 및 역원은 미상.

한편 천도교청년당 맹산부 당원대회가 1932년 1월 4일 개최되어 농민공생조합 발전책으로서 매당원이 5구 이상 책임모집할 것을 결의하였다. 92) 맹산공생조합은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물품을 취급하였고 정찰제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물품은 주로 군조합이 평양에서 구입하여 면조합으로 계통출하 하였는데 운반은 조합 소유의 화물자동차 2대와 각 단위 조합의 우마차로 하였다. 93) 그리고 읍내, 동창, 남창, 가창, 북창, 애창의 6 개소의 공생조합은 농민의 날 기념 廉賣日을 운영하여

88) 『동아일보』, 1931. 1. 18, 「正廣里農民社 정기총회가 있어서」.

89) 『동아일보』, 1931. 2. 3, 「趙遙里農社創立」.

90) 『동아일보』, 1931. 4. 7, 「孟山 北倉리에 協同組合組織 斡旋部事業이 主要目的」.

91) 「農民新聞」, 『農民』7, 1933. 7, 51쪽.

92) 黨聲, 1932. 2. 1, 「黨地方部消息」. 이 대회에서 선출된 위원은 다음과 같다

93) 김도준, 박연수와와의 대담, 앞의 글 63 쪽

소비자에게 염가로 소비품을 제공하는 동시에 물품구매자에게 기념품까지 주었다.<sup>94)</sup> 다른 한편 앞서서도 서술하였듯이 맹산군농민공생조합은 1931년 8월 10일 평양천도교당에서 개최되었던 공생조합관서연합회에 가입하여 평남 제5구의 구역 이사에 맹산의 홍진혁이 선임되었다.<sup>95)</sup>

또한 1931년 6월 20일에는 맹산군농민사 옥천면연합대회를 열고 각리의 농민사의 협력으로 농민병원을 설립하여 일반농민의 최대 고통인 사망진단비와 사체검안비를 폐하고 환자의 치료비로 실가 혹은 무료로 할 것, x절주의를 폐지할 것 농민이발소를 설치하여 요금을 절약할 것을 결의한 후 이사장 홍진혁, 부이사장 조병x 외 수명을 선출하였다.<sup>96)</sup> 이어서 6월 30일에는 앞의 군농민사 옥천면연합대회의 결의사항을 맹산농민공생조합에서 다시 한번 결의하였다. 그리고 평의원에 문병로, 길응철, 방환x, 김대현, 박명원, 朴準祺, 나영선, 金利涉을 선임하고 박용완, 박x, 김도수, 이용규, 방응현을 선임하였다. 결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sup>97)</sup>

1. 농민병원을 군내 주요지에 설치하고 일반 농민에게 실비 혹은 무료로 치료하는 동시에 사망진단비와 사체검안비를 단연 폐지할 것.
1. 전국 각리에 소비조합 1개소의 소비조합을 설치할 것
1. **평양에 설치하고자 준비 중인 고무공장에 대해서는** 군농민사와 조합 간부가 구금 2천원을 책임지고 모금할 것(강조는 인용자)

이에 따라 맹산군 봉인면농민사에서 1931년 7월 17일 11개리의 농민사 대표 30여명이 모여 면연합창립대회를 개최하고 소비조합과 각 리 이발소를 각 리의 농민사에 설치하기로 하고 농민병원은 1931년 안에 설치하자고 의결하였다.<sup>98)</sup> 이러한 사업은 공생조합규약 제14조 위생부의 사업에 규정되어 있었다.<sup>99)</sup> 이로 보아

94) 『동아일보』, 1931. 12. 7, 「農民날 紀念코저 犧牲的廉賣實施」.

95) 黨聲, 1931. 10. 1, 「農民共生組合 關西聯合會」. 관서연합회에는 평북에 5개 구, 평남에 6개 구, 황해에 1개 구가 설치되었다. 맹산군공생조합이 속한 평남 제5구에는 德川, 寧遠이 속해있다.

96) 『동아일보』, 1931. 6. 25, 「農民病院設立 實費로 施療」.

97) 『동아일보』, 1931. 7. 7, 「農民理髮館과 農民病院設置」.

98) 『동아일보』, 1931. 7. 22, 「封仁農民社에서 消費組合 創設」.

99) 김도준, 박연수와와의 대담, 앞의 글 57쪽

군농민사와 군공생조합의 사업 주체는 때에 따라 바뀌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농민잡지를 사원마다 구독할 것, 공생조합에 가입할 것, 의무금을 7월 말일 이내로 완전 이행할 것 등을 결의하였으며 이사장에 羅文奎, 부이사장에 金東浩, 機務部 나문규, 재무부 김동호, 조직부 李炳龍, 교양부 金興典, 경제부 吉昇浩, 쟁의부 李鳳武, 이사 朱成南, 감사 朴用玩을 선출하였다.<sup>100)</sup> 그리고 봉인면 가창리농민사에서는 1931년 7월 14일 사원대회를 열고 도부면(?) 구내의 이등도로와 면사무소, 주재소의 설치공사청부에 낙찰을 받도록 할 것을 토의하였다.<sup>101)</sup>

한편 맹산군 옥천면三里에서의 농민사의 활동은 모범적인 사례로 꼽힌다. 삼리는 100여호의 농민이 거주하는 전형적인 산골이었다. 교통과 통신은 물론이고 주민의 民度 역시 매우 낮은 곳이었다. 즉 1930년 6월경 삼리의 吳京學, 孔文九, 吉×鳳 등 청년이 7~8명의 농민을 모아 농민사를 조직한 후 불과 2, 3개월만에 70여명의 사원이 가입한 대규모의 농민사로 성장시켰던 것이다. 이러한 삼리농민사의 성장은 주민의 생활을 개선하는 운동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리하여 관혼상제 시의 허례 폐지, 외국산 의복의 금지 및 국산품 애용, 소비조합의 설치를 통한 물품의 구입, 금주 등이 실천되었으며 독서회와 신문강독회, 농민학원의 설치, 음력명절을 이용한 의식의 개혁 등을 실천하거나 계획하였다.<sup>102)</sup> 그리고 삼리농민사에서 1931년 7월 26일 위생부를 조직하여 매일 15일과 30일을 위생데이로 정하여 청결활동을 하는 한편 파리를 박멸하기 위해 파리잡는 기구를 공동구입하는 등 집회 혹은 기회를 이용하여 위생문제를 선전하기로 하였다.<sup>103)</sup> 이외에도 지덕면 용덕리농민사는 금주단연을 제안하여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sup>104)</sup> 지덕면 효리농민사도 창립과 동시에 금주단연을 결의하였다.<sup>105)</sup> 또한 미신타과의 명목으로 동리굿을 폐지하기 위한 선전활동을 하기도 하였다.<sup>106)</sup>

그리고 미신타과 등의 생활개선운동도 전개하였다. 원남면 정인리와 시역리에서

100) 『동아일보』, 1931. 7. 28. 「孟山郡 封仁面 農社聯合大會」.

101) 『동아일보』, 1931. 8. 7. 「假倉里社員會」.

102) 『동아일보』, 1931. 8. 4. 「孟山의 新理想村 三里를 紹介함」.

103) 『동아일보』, 1931. 8. 18. 「衛生思想 鼓吹코저 農民衛生部 組織」.

104) 『동아일보』, 1931. 2. 19. 「龍德里農社서 禁酒斷煙實行」.

105) 『동아일보』, 1931. 2. 19. 「消費節約 爲해 孝里農社創立 禁酒斷煙까지」.

106) 『동아일보』, 1931. 4. 16. 「三里農社에서 洞里又廢止宣戰 根本的으로 迷信打破」.

는 1930년 읍력설을 기해 생활개선, 미신타파, 구관혁신, 문맹퇴치 등의 뼈라를 배부하고 선전활동을 하였다.<sup>107)</sup> 1931년 8월 30일에는 퇴봉면 농민사 연합회를 창립하고 허례허식의 폐지와 소비조합의 설치를 결의하였다.<sup>108)</sup> 옥천면 삼리농민사는 1931년 읍력설 당일 생활개선을 목적으로 세배를 폐지하지는 뼈라를 살포하였다.<sup>109)</sup> 삼리농민사는 조합원 35인, 구금액 15원이었으며 알선품목은 석유, 학용품 주류였고 조합장 박서봉, 상무 배몽갑, 감사 공문구 이영선이었다.<sup>110)</sup>

한편 이와 같은 맹산군농민사의 활동에 짝하여 맹산군농민사의 이사장을 역임 하였던 조처항은 1932년 4월 4일 조선농민사 제5차 대회에서 중앙이사 후보에 선임되고 있는 것이다.<sup>111)</sup>

또한 맹산군농민공생조합은 1933년 4월 27일의 조선농민공생조합의 제 회 정기대표대회와 8월 15일의 공생조합 중앙 및 지방의 정관 개정에 따라 재조직을 행하였다. 그리하여 1933년 10월 1일 맹산군농민사 이사회를 개최하여 맹산군 소속 7개 조합을 독립시키기로 하고 각 조합을 통제하기 위하여 다음을 결정하였다.<sup>112)</sup>

1. 조합간에 신용을 엄수할 것
2. 조합간 물품 취인에 특별 대우할 것.
3. 외상처리에 있어서는 단시일 내로 속히 정리할 것.

그리고 조합당무자강좌를 10월 7, 8, 9일에 조합문제 및 실무라는 주제로 개최하기로 하고 문병로, 박용완, 조처항을 강사로 선정하였다.<sup>113)</sup>

한편 1930년에 창립된 맹산군 북창소년회는 ‘소년들도 오늘날의 궁박하여 가는 경제생활에 각성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이유로 소년회의 경제사업으로 少年經理社

107) 『동아일보』, 1930. 3. 4, 「農村啓發宣傳」.

108) 『동아일보』, 1931. 9. 27. 「孟山農民社 面聯合會 創立」

109) 『동아일보』, 1931. 2. 26, 「歲拜廢止코 生活改善宣傳 一人一能會도 開催」

110) 「農民新聞」, 『農民』7, 1933. 7, 51쪽.

111) 黨聲, 1932. 5. 1, 「朝鮮農民社 第5次 大會 經過」

112) 「改正定款에 依한 再組織 맹산군이사회에서」, 『農民』11, 1933. 11, 49 쪽

113) 위의 책, 49~50쪽.



를 창설하여 일용 소비품을 알선하고 여기에서 창출되는 이익금으로 소년회의 교양비와 기타 경비로 사용하였다.<sup>114)</sup> 이로 보아 맹산군농민사는 농민공생조합운동의 연장선에서 계층별 조직을 결성하였던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그런데 맹산농민사가 해체된 것은 대략 1935년경이라 한다.<sup>115)</sup> 해체된 이유는 자료상의 한계로 인하여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다음의 정황으로 보아 추측은 가능하다. 즉 맹산군농민사가 당세확장 3개년 계획 시행 첫해의 결과 61명의 사원을 새로 모집하였다는 사실<sup>116)</sup>과 “110개소의 리동농민사와 3,000여명의 사원을 가진 맹산농민사는 (중략) 군내 방방곡곡에 깊이 뿌리박힌 사업이 힘차게 발전하고 있다”<sup>117)</sup>는 기사로 보아 1934년 초반 경까지 맹산군농민사는 활동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맹산군농민사의 핵심사업이라 할 수 있는 맹산군농민공생조합에 조합자금의 절반 가량을 군내 大商會主가 출자하였다는 점은 맹산군농민사의 구조적인 한계로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맹산군농민사에는 농민사가 목적으로 했던 것과는 달리 농민층과 이해를 달리하는 계급 혹은 계층들이 다수 참여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점은 재정적인 곤란으로 인해 맹산군농민사가 이들 ‘大商會主’를 받아들인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이러한 재정적인 곤란은 1933년 맹산군농민공생조합의 은행령 위반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따라서 맹산군농민사는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결국 맹산군농민사는 재정적인 곤란으로 인하여 ‘大商會主’를 수용하고 은행령을 위반하게 되면서 서서히 그 활동이 침체되다가 1935년 무렵에 해체된 것으로 보인다.

1933년 2월 2일에는 사우회를 개최하여 다음을 결의하였다.<sup>118)</sup>

1. 사세 확장 : 사원모집 3,000명 20개 리사 건설
1. 교양의 건 : 『農民』 독자 150명 모집 교양대 파견 년 3차 이상의 지도강습
1. 공동경작 : 20 개소 실시
1. 조합운동의 건

114) 李鍾堧, 「孟山에 少年經濟運動 少年經理社를 創立」, 『신인간』58, 1932. 7, 61 쪽

115) 김도준, 박연수와의 대담 앞의 글 62 쪽

116) 黨聲, 1934. 3. 1. 「黨勢擴張 三個年計劃 第1年度 第2期分實蹟(4)」

117) 『동아일보』, 1934. 2. 4.

118) 『農民』3, 1933. 3, 45 쪽.

## 3) 공동경작과 공작계

다른 한편 맹산군에서는 1932년을 전후한 시기에 공동경작을 위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그리하여 맹산군농민사는 1932년 2월 2일 제8차 전군대표대회를 각리에 서 선출된 103명의 대의원의 출석 하에 개최하였으며 共同耕作 實施의 件 蠶種代 減下運動의 件 등 4개항을 토의하였다.<sup>119)</sup> 맹산군공작계는 1933년 3월경부터 조직되어 전군에 걸쳐 거의 빠짐없이 조직되었다. 맹산청년회원으로 추정되는 玄波生은 「青年會에 대한 緊急提議數件」<sup>120)</sup>이란 글에서 청년회의 기초를 확립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공동경작을 들고 있다. 이로 보아 앞에서도 보았듯이 공작계는 단순한 농민의 당면이익을 획득하기 위한 조직이 아니라 천도교의 교세를 확장하는 한 방법이기도 하였다는 것을 지역 차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맹산군에서 공작계가 조직된 지역은 다음과 같다.<sup>121)</sup>

맹산군공작계위원장 : 조처항 간사 박명원 박신덕 방환기

위원: 박준기 공처관 계중학 방호구 공문구 김경선 장봉한 이금록 최보국 신  
치모 한몽응 이병강 김도준 김리섭 길화 김홍수 김기영 방환린 정덕화  
김태봉 박찬조 이명호 박홍주

남양리 제1부계장 : 최문준 간사 김찬술 이창길 계원 김락도 이경락 노승관  
(전 1,200평 옥당 경작)

남양리 제2부 계장 : 김덕윤 간사 이하실 이창록 계원 신봉호 김덕화 이하성  
(매호 柴木 1駄씩 집적하였다가 적당한 시기에 공동판매하기로 함)

용덕리 계장 : 조동식 간사 조병적 김병훈 계원 趙炳恰 조병륜 방병주 조병식  
조오규 김화순(답 400평 경작)

안학리 계장 : 김경선 간사 최리열 김봉식 김려택 계원 김인선 김윤봉 김리선  
김명근(土器 一窯를 燒成키로 함)

119) 「農民社新聞」, 『農民』4, 1932. 4, 38쪽. 이 때 선출된 간부는 이사장 조처항, 부이사장 문병로, 총무부장 방환기, 재무부장 박준기, 조직부장 홍진혁, 교양부장 박용완, 경제부장 조처항, 쟁의부장 길응철 등이다.

120) 玄波生, 「青年會에 대한 緊急提議數件」, 黨聲 1933. 12. 1.

121) 「各地方 共作契의 狀況(2)」, 『신인간』70, 1933. 7, 29~30쪽. 1934년에는 여기에 孟山공작계와 安下里 공작계가 조직되었다. 맹산공작계장은 尹鎭弘이며 안하리 제1부 공작계장은 韓夢得, 제2부 공작계장은 金貞模였다. (『共作契彙報』, 『신인간』82, 1934. 7, 137쪽(경인문화사 영인본 쪽수))

성재리 제1부 계장: 길운보 간사 유관룡 길운봉 계원 박원정 길운기  
 성재리 제2부 계장: 방용현 간사 김용연 방용진 계원 박원길 방윤화 윤태봉  
 방대선(전 2,400평 옥당 경작)  
 초평리 제1부 계장: 김원규 간사 김희순 방종주 계원 방석준 방희준 김춘하  
 초평리 제2부 계장: 차병현 간사 김승조 신명선 계원 백용수 길희순 이용관  
 풍림리 제1부 계장: 김삼인 간사 송병관 계원 김대근 박선학  
 풍림리 제2부 계장: 박인섭 간사 조영식 계원 주경삼 길운빈

이외에도 공동경작을 실시한 농민사는 용덕리농민사,<sup>122)</sup> 동해농민사,<sup>123)</sup> 상계리 농민사,<sup>124)</sup> 삼리사(전 3,600평, 경작인원 15인), 안하리사(답 1,200평, 경작인원 32인), 강포리사(답 400평, 경작인원 5인), 고상리사(전 14,400평, 경작인원 21인), 현봉리사(전 3,600평, 경작인원 16인), 명장리사(전3,000평, 경작인원 18인), 곤동사(전 1,200평, 경작인원 5인), 정광리사(답 600평, 경작인원 10인)이었다. 차금정리조합을 설치한 농민사는 고상리사(조합원 18인, 조합장 이용순, 서기장 김달백, 감사 이두순), 용덕리사(조합원 11인, 조합장 조동식, 서기장 방병주, 감사 김기범)이었다. 이와 같이 맹산군농민사는 공동경작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맹산군농민사는 차금조합, 소비조합을 설치해서 성공적인 농민사운동을 전개하였다.

## V. 맺음말

일제하 농민운동은 1920년대 초반 소작쟁의를 시작으로 점차 이념적, 조직적으로 발전을 하였다. 이 과정은 농민운동의 발전과정이자 동시에 국내에서의 민족운동의 발전과정이기도 하였다. 일제하 농민운동은 크게 보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사회주의 계열의 농민조합운동이고, 다른 하나는 천도교계통의 조선농민사운동이나 기독교계통의 농촌사업 등 개량주의적인 농민운동이다. 이 두 부류의 운동이 가지는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운동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

122) 『동아일보』, 1931. 9. 17, 「孟山龍德農民社서 共同耕作을 計劃」.

123) 『동아일보』, 1931. 9. 24, 「孟山東海農社서 夜學館建築決意」.

124) 『동아일보』, 1931. 10. 6, 「上界里農社 菜蔬共同耕作」.

가 하는 점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농민조합운동이 일제의 타도와 함께 사회주의를 건설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천도교와 기독교계통의 개량주의적인 농민운동은 당면의 현실문제의 해결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 것이다.

본고에서 살핀 맹산군농민사의 활동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맹산군에는 동학농민운동의 전후 시기에 동학이 전파되었으나 동학·천도교가 대중화되는 것은 대략 3·1운동 이후라 생각된다. 이는 천도교종학강습소, 천도교청년회 등 천도교측의 포덕활동 및 3·1운동과정에서 천도교가 보여준 지도적인 활동에 기인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그 결과 1925년에 조선농민사 맹산지사가 설치된 이후 맹산군의 8개면 및 85 개리에 맹산군농민사의 조직이 전군적으로 결성되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할 수 있었다. 둘째, 맹산군농민사는 야학·강습회, 독서회 등을 조직하여 민중을 계몽하는 활동을 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단순한 천도교의 전파라는 목적에서가 아니라 광범위한 농민층에 대한 계몽활동의 일환이었다. 그리하여 천도교 야학만이 아니라 일반 농민야학과도 연계하여 활동하였으며 조선사, 경제, 한글 등의 과목을 교수하였던 것이라 생각된다. 셋째, 맹산군농민사의 핵심적인 활동은 농민의 경제적 이익을 획득하기 위한 것이었다. 맹산군농민사의 알선부와 농민공생조합의 활동은 당시 농민사활동 중 가장 모범적인 것이었다. 그런데 알선부사업이 강화되는 것은 1930년 4월 법적관계 3개조안이 통과된 이후의 일이었다. 알선부사업은 농민의 필수품을 공동으로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위주로 하였다. 그리고 알선부사업을 특화시켜 설치한 것이 공생조합이다. 공생조합은 알선부사업과 큰 차이는 없었으나 천도교회의 지도 혹은 감독이 더욱 강화된 형태를 갖게 되었다. 그것은 통제부의 설치에서 알 수 있다. 그리하여 농민의 경제적 이익을 획득하려는 공생조합의 목적보다는 천도교세의 확장을 도모하려는 측면이 보다 강조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모습 역시 맹산군에서도 확인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맹산의 ‘대상회주’인 정영찬과 이화선이 공생조합에 자신의 상점을 합친 점에서 알 수 있다. 이 결과 맹산지역의 다른 상점 가운데는 폐점하는 경우도 생겼던 것이다. 이는 곧 맹산군의 유통을 공생조합이 장악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천도교의 영향은 천도교의 신앙과는 상관 없이 일반 농민에게 더욱 확대되었을 것이다. 이로써 맹산군의 천도교세는 더욱

확대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맹산군농민공생조합에 이들 대상회주가 참여하였다는 사실은 농민층과 이해를 달리하는 계급 혹은 계층이 참여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곧 맹산군농민사의 활동이 농민사가 목적으로 했던 농민의 당면 이익을 옹호한다는 것에 위배되는 것이었다. 이리하여 맹산군농민사의 활동은 위기를 초래했던 것이라 생각된다. 넷째, 공동경작과 공작계 활동은 천도교의 이상사회건설사상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천도교세를 확보하는 한 수단으로 이용되었다고 생각된다.

이상에서 볼 때 맹산군농민사는 농민층의 일상이익을 획득하기 위한 활동을 주로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은 철저하게 조선농민사 중앙본부의 통제 아래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러나 1934년을 고비로 농민사운동은 그 세력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본고에서 사례 분석한 맹산군농민사의 경우도 1935년에 해체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 참고문헌

『黨聲』, 『天道教會月報』, 『신인간』, 『農民』, 『朝鮮農民』, 『東亞日報』

● 투고일 : 2003. 4. 15

● 심사완료일 : 2003. 5. 12

● 주제어(Key words): 천도교(Chondoism), 조선농민사(Chosun Agrarian Organization), 맹산군(Maengsan-gun)